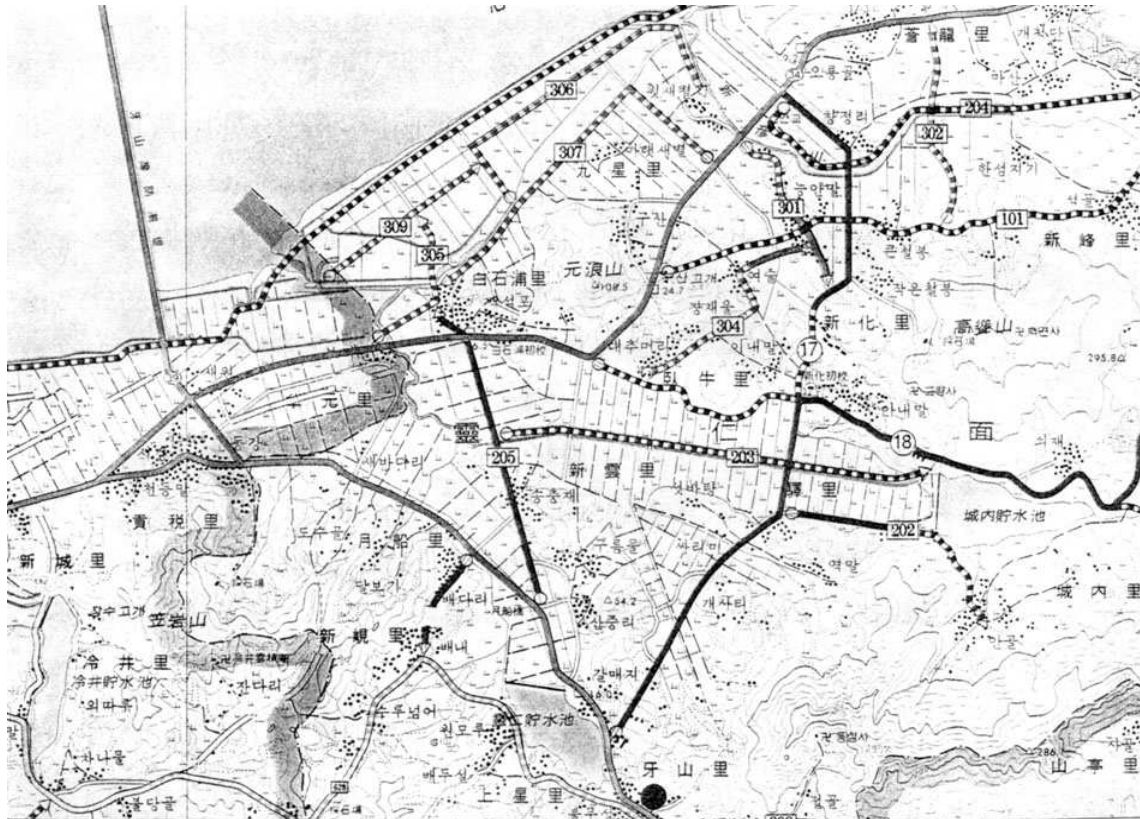


구성리·九星里

구성리는 본래 아산군 이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구산리 신언리 신성리와 신흥면의 신성리를 병합하여 구산과 신성의 이름을 따서 구성리라 하여 영인면에 편입되었다. 구성리는 영인면의 한 마을로 옛 지명은 구산이다. 현재는 3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리는 구산 2리는 위 새별과 아래새별 3리는 개척단으로 능안말이라고 한다. 아산호까지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은 간척지 쌀로서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인구수는 총 733명이고 가구수는 226호에 이른다.

<구성리 위치도>



☒ 구산, 새별, 능안말마을

구산(구성1리)마을은 구산이라고도하며, 기와집 마을, 구산, 새구산등 3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0년대 간척사업을 시작하여 아산만 방조제가 축조되고 갯벌을 경지정리하고 수리 시설을 확충하여 천수답과 간척지가 옥토로 변하여 가뭄걱정 없이 벼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되었다.

새별(구산2리)마을은 윗새별과 아래 새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넓은 평야지대로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으나 1970년대 아산만 방조제가 건설되기 전에는 많은 어선들이 드나들던 포구가 있던 어촌 이었다.

구산 3리마을은 능안말이라고 하는데,1958년도에 피난민들이 모여들어 개척한 마을로서 6.25 동란으로 이북에서 내려온 난민들을 정착 시키기 위하여 180여세대의 집을 지어 거주케하고 백석포 펄을 막아 170여만 평을 간척하여 분양하고 정착하게 하였다.

<조사 당시 구성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면소재지에서 북쪽으로 5~6km지점에 위치하며 구성 1리와 구성 3리 경계를 국도 34호가 있어 삼교호-둔포, 평택간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있어 매우 편리하다.

2) 현황

인구분포 현황에서는 구산 마을이 189명, 새별마을이 235명, 능안말 마을이 309명으로 가장 많고 세마을을 모두 남.여 비율이 비슷했다. 생업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구산이 80%, 능안말 76%, 새별 71%로 나타났으며, 농경지 현황에서는 능안말이 151ha로 가장 많았다.

- 인구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구산	189명	99명	90명
새별	235명	110명	125명
능안말	309명	150명	159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구산	100%	80%	20%
새별	100%	71%	29%

능안말	100%	76%	24%
-----	------	-----	-----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구산	79ha	67ha	12ha
새별	92ha	81ha	11ha
능안말	151ha	140ha	11ha

농기계 보유 현황에서는 세마을 모두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 농기계 보유 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구산	29대	10대			4대	12대	1대
새별	32대	12대			1대	20대	5대
능안말	26대	12대		1대	6대	27대	8대

- 문화 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 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구산	1채	1개	1조	
새별	1채	1개	1조	
능안말	1채	1개	1조	

- 연령 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구산	12명	15명	5명	10명	35명	51명	35명	20명	6명
새별	17명	14명	18명	23명	29명	44명	65명	19명	6명
능안말	13명	20명	49명	38명	42명	69명	49명	23명	6명

성씨별 분포 현황에서는 구산마을은 김씨가 47%로 가장 많고, 새별마을은 이씨가 20%로 가장 많으며, 능안말 마을도 이씨가 30%를 차지하고 있었다.

- 성씨별 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장씨	박씨	유씨	정씨	홍씨	기타
구산	47%	5%	7%	1%	5%	5%	5%	25%
새별	11%	20%	18%	7%	2%	1%		41%
능안말	15%	30%	1%	8%	4%	3%	1%	38%

- 학생 분포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	------	-----	------	-----

마을명				
구산	12명	5명	3명	4명
새별	14명	7명	5명	6명
능안말	10명	11명	9명	5명

－ 최고령자

구산마을은 정기성 할아버지(84세), 새별마을은 당간선 할머니(86세), 능안말마을은 이동기 할아버지(87세)

－ 호당평균소득

구산마을은 년/1,000만원, 새별마을은 년/700만원, 능안말마을은 년/1,000만원

3) 자연 경관

논밭은 평평한 반면, 주택지역은 비탈져 있다.

4) 지명

구 산 : 원랑산 동북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거북처럼 생겼음.

능안말 : 능터 안쪽에 있는 마을. 본래 집이 없었는데 1958년 6월에 난민정착지로 지정되어 그해 12월에 80호를 이주시켰음.

새별(신성리) : 구성 북쪽 객가 큰 벌판에 있는 마을.

아래새별 : 새별 아래쪽에 있는 마을

윗 새별 : 새별 위쪽에 있는 마을

능 터 : 구산 동쪽에 있는 터 .큰 묘가 있음.

월양산(원양산, 구산) : 백석포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광해군때 선비들이 이산에 올라가 세상이 바로 잡힐 때를 기다렸다 함.

속필들 : 미국 원조 곡물로 제방을 만드는 중에 아산방조제가 축조되어 170만평의 옥토가 된 들

오대교 : 수십 명이 앉을만한 큰 바위로, 바위 앞에 연못을 파서 연못속에 물고기를 키웠다 하며, 문장공이 후진을 가르치고 선비들이 시를 읊었다고 한다.

집수장 : 수자원공사 공업용수 집수장이 아산 호변 새별리 옆에 있다.

이호준의묘 : 승록 대부 판중추부사의 묘가 있다. (이완용의 아버지)

장군바위 : 바위에 커다란 손자국이 있어서 장군바위라 한다.

5) 변천

아산군 이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구산리, 신언리, 신성리와 신흥면의 신성리를 병합하여 구산과 신성의 이름을 따서 구성리라 하여 영인면에 편입되었다.

6) 입향

구성 1리는 이씨가 19대에 걸쳐 거주해 오고 있으며, 후에 김해김씨도 들어와 거주해 살고 있으며, 다른 성씨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 문장공의 묘는 음봉면 산정리에 있으며 신도비도 있다.

구성 2리는 단양장씨의 집성촌이며 이씨도 많이 살고 있다. 구성 3리는 다른파들이지만 이씨가 많이 살고 있으며 김씨도 많이 살고 있다.

7) 전 설

노적바위 : 구산 아래 있으며, 그 바위가 경기도 평택시의 팽성계양이란 동네와 마주 보고 있는데,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이바위를 가려야 계양 여자들의 정신이 온전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자가 생겼었다 한다. 매년 정월에 이엉을 엮어서 둘러놓는 것을 옷을 입힌다고 하는데 산 사람들은 이것을 벗겨 버린다고함. 지금은 화황사라는 절이 있다.

8)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이마을에서는 마을회 기금을 적립하여 경로 위안 잔치 및 독거노인, 거택보호자 구호활동 전개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 운동으로 분리수거 및 청결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마을주민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계모임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년 부녀회에서 추진하는 경로 잔치가 있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 문장공 김구

자는 직중이요 호는 송정이며 본관은 경주 이니 대사헌 광주의 아들이다 세종대 문과급제하여 대제학 판중추부사에 올랐다. 경학이 정박했으며 성균관에 벼슬할 때에 가르치기를 게을리 함이 없어 윤상 이후에 제일인 이라고 하였다. 단종초에 나라의 형세가 어지러워 지는 것을 보고 아산으로 은거하여 오교대를 축조하였다. 세조가 제학의 벼슬을 주고 아홉차례나 불렀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왕이 크게 노하여 벼슬을 삭탈하여 서인을 만들었다 성종때 신원되어 관직이 회복되고 시호를 문장이라 했다 묘는 음봉면 산정리에 있으며 신도비도 있다.

10) 종교단체

성서 침례회 벤엘 성서 침례교회 영인면 구성3리 목사 이봉윤 종파 : 침례교

구성리 교회 영인면 구성3리 목사 노희열 종파 : 안식일 예수 재림교

화황사 영인면 구성1리 주지 정명심행 정순용 종파 : 원효종단

11) 공장현황

- 농공단지

(주) 명신 : 생산품목-자동차 부품

(주) 아주사업 대표 : 경호현 구성 18-4번지 생산품목-프라스틱튜브

(주) 온양아스콘 대표 : 장기복 구성산 30-1 생산품목-아스팔트 제조

12) 마을의 특성

이 마을은 처음에는 어촌 이었다가 다시 농촌으로 변화된 특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동네이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해내는 아산의 한 평야로써 성장해 있고 앞으로 더 더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곳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